함평군, 빛의 꽃 피운다… '2025 함평 겨울빛축제' 준비 박차

'함평의 밤, 빛의 향연' 11월 28일 개막… 45일간 '빛의 테마파크' 선보인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겨울을 환하게 밝힐 '2025 함평 겨울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함평군은 18일 "'2025 함평 겨울빛축제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가 지난 17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익 함평군수와 강하춘 부군수, 22개 실·과장, 9개 읍면장, 함평축제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장의 야간경관 조명 연출과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구성, 캐릭터 팝업스토어·푸드트럭·농특산물 판매장 등 부대시설 운영 계획, 읍 시가지 상권과의 연계 방안,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까지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2025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오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겨울빛축제는 지난해 첫 개최에도 8만여 명이 방문해 함평군이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등을 통해 구축해온 축제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렸던 축제장을 활용해 ▲이이남 작가의 대형 미디어아트 '빛으로 피어난 겨울, 함평의 인사' 전시 ▲빛의 회전목마·미로정원, 천사 조형물 등 특색 있는 야간경관조명 연출을 더해 빛과 예술이 결합된 '빛의 테마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상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및 버스킹 ▲크리스마스 마칭밴드 공연 ▲눈꽃 화관·트리 만들기 ▲산타복 입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빛과 예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함평의 새로운 겨울 명소가 될 것"이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공동육아나눔터 갖춘 영암군가족센터 해마루 준공

가족친화 거점시설 삼호읍에 들어서… 다낭시전통예술단 축하 공연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5일 삼호읍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옆에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가족센터 '해마루'를 준공했다.

가족 친화 거점시설인 해마루는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이 시작됐고, 올해 4월 준공, 6월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준공했다.

특히, 쾌적한 가족 친화 공간으로 소개된 해마루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융의 '신한 꿈도담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공모에 선정,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꾸며졌다.

이날 준공에 앞서 올해 9월부터는 해마루에 가족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입주해 운영에 들어갔다.

준공식에 이어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한 2부 문화공연에서는 베트남 다낭시전통예술단이 전통 춤과 악기 연주로, 성향예술단이 아쟁산조와 판소리 공연 등으로 다양한 가족과 문화가 어울릴 센터의 앞길을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다낭시전통예술단과 성향예술단의 합동공연에서 가족센터 해마루의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었다. 보편적 가족 서비스와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2026년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시작

관내·외 구분 없이 남자 6명, 여자 6명 선발 예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11월 19일(수)부터 12월 5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구직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거형 취업 준비 공간으로 1층에는 스터디카페, 2·3층에는 성별이 분리된 주거 공간, 4층에는 돔형 모양의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구직 중인 무직자, 무주택 청년이며,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입주신청서 등이다.

모집 인원은 여성 6명, 남성 6명, 총 12명이며,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기본 자격을 확인한 뒤, 최종 추첨으로 확정된다. 호실 배정 또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는 화순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청년센터와 연계된 취·창업 특강,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청년하우스 입주자 15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접수는 정부24에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또는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광군,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집중 추진

모기 발생 억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겨울철에도 모기 유충이 정화조 등에서 생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기 유충은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 등 고인 물 환경에서 월동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 유충을 적절히 구제할 경우 내년도 모기 성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선제적 방역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군은 대형 건물 및 공동주택 정화조 , 공원·관광지 공중화장실, 시장, 저수지 등 모기 서식이 용이한 취약지역 130여 개소를 중심으로 유충구제제를 투입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을 통해 겨울철 모기 서식환경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일본뇌염·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군민 스스로도 가정 내 화분받침·빗물받이·베란다 고임물 등 작은 물웅덩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모기 서식환경을 없애는 데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유충 단계에서의 차단은 모기 성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철저한 동절기 방역을 통해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성군,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명승 지정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두루 갖춘 보성 대표 경승지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되어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

험준한 기암괴석과 풍혈지: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독특한 지형 풍혈(風穴)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신앙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제(厲祭):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그 재앙을 일으키는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여제(厲祭) 봉행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종교적·민속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통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석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채석지 흔적과 구들장을 운반하던 우마차길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자연·문화·산업사적 가치가 함께 담긴 복합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군은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에 대한 학술 조사, 연구, 보존 관리, 활용 프로그램 등의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탐방로 정비, △안전·편의시설 구축, △전문 해설·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품 자연유산 관광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력… 장학금·주거환경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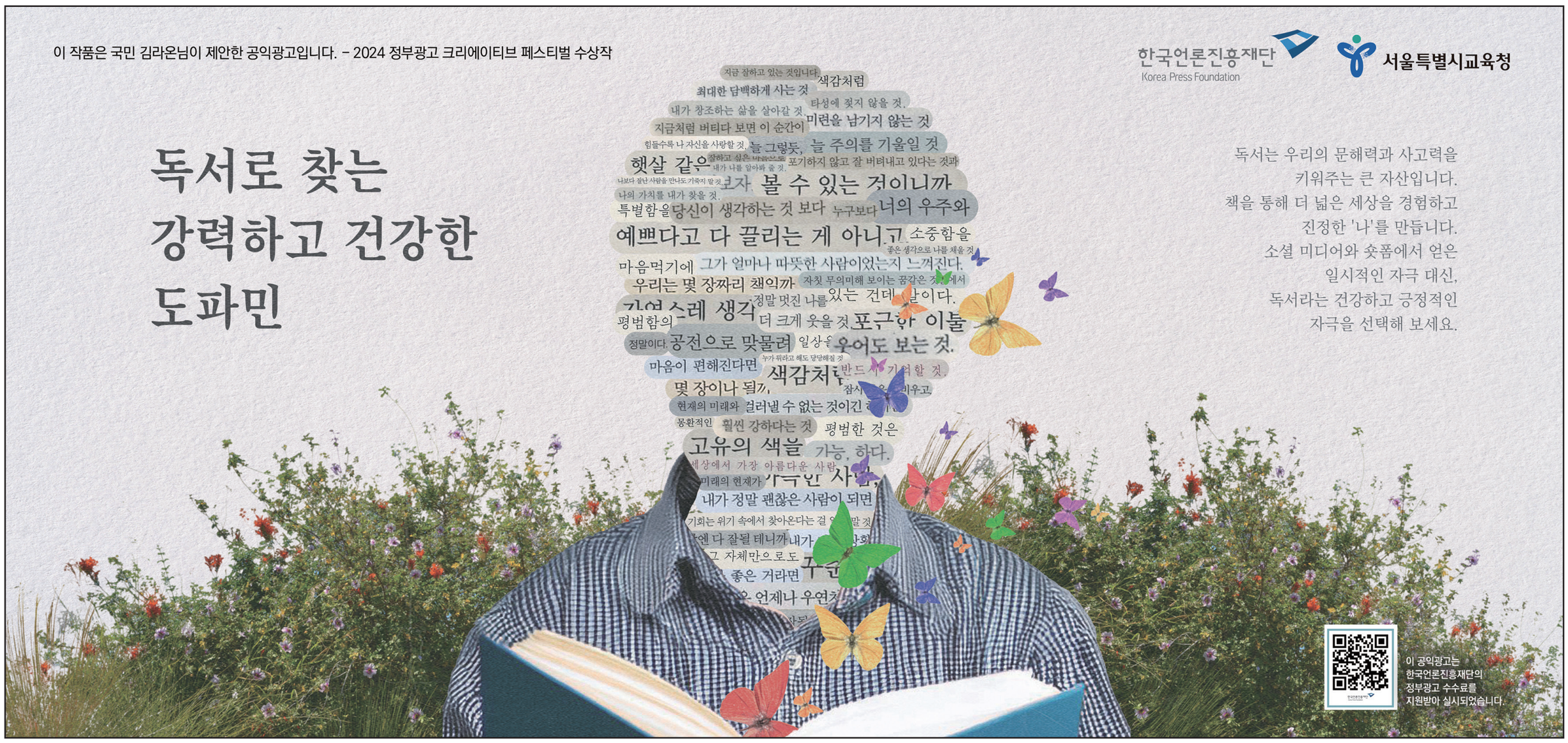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손은아)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준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총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학업 지속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안전망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후 사후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준영 본부장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학업과 꿈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담양군복지재단 위탁 운영으로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집단 프로그램, 부모 교육,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